

오직 느 13:1-14

오직이라는 단어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오직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경복하게 되어 있다. 인생이라는 문제를 경복하게 되어 있다. 인생의 문제에 놀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이 한 단어를 보려고 한다. 오늘은 맥추절로 지키는 날이다.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약속의 피, 유월절로부터 50 일째 날이다. 약속의 피, 그 언약의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시작을 해서 7안식일 49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맥추절이다.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고, 안식일 다음날 성령님 오셨다. 무슨 뜻인가?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이 답이다.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당한다. 인생에 놀리게 되어 있다. 살아도 살아도 답이 안 나게 되어 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한다. 처음부터 영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도 영이다. 맥추절, 중요하다는 말이다. 헌금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도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원리를 성취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 끝이라는 것이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만 된다고 하셨다. 말세가 될수록 영적문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답은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오직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피에 오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답은 한 개를 줬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답은 한 개 줬다면 거기에 오직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으로 끝이다. 왜냐면 그 답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로 인생 전체것이 해결된다. 진짜 정리하고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잡고 언약으로 잡고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를 정복하게 되어 있다. 해방되게 된다. 해방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잡아야 한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24로 가는 것이다. 시간간 초월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데 시간간 초월이 바로 오나? 절대 안온다. 와도 이상한 시간간 초월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늘 잡고 살아야 한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확인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약속의 피를 언약으로 잡고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근본이고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직으로 끝이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작품이다. 치유도 되고 증인도 된다. 답은 정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 정말로 언약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답이라 했는데, 나에게 언약이 안되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병이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지게 되어 있다. 새로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오직이 단어로 되어 있다가 내 안에 들어와 능력 권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하신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배를 통해 말씀 받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지속이 되어 지면 문제를 정복하게 된다. 평생의 소원이다. 전도자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기 바란다. 말씀 받으면 다 되는 것이다.

1. 오직

오직이기 때문에 한 단어만 보겠다. 오직 하나로 끝이기 때문이다. 오직은 출발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다. 왜냐하면 오직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완전한 답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약속의 피를 꺾을자가 세상에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의 피를 꺾을 사건이 이 세상에 있는가? 아무도, 아무것도 못 꺾는데, 마지막날 이 약속의 피로

심판할 때 대드는 사람은 다 지옥가는 것이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이것을 아는 사람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의 반대가 뭐가? 바보이다. 아직 안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다. 왜 우리가 바보로 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가? 그러면 지구 하나 만들어 보라 하지. 먼지도 하나 못 만드는데 살았다고 입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렘넌트이다.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 신임을 바탕으로 왕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런데 그가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것을 개혁했다. 아주 훌륭한 사명자였다. 그 이야기가 13장 전체에 나온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암몬과 모압에 관한 것이다. 롯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랬다. 민수기 22장에 나온다. 그런데 1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23:3절에 나온다. 이것을 다 읽고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여자들을 다 보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방인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종교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종교문화는 전부 귀신문화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버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건지는 계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힘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불신자였다.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좀 다니다 말았다. 중학교때 다녔었다고 한다. 나는 완전 불신자였다. 그러면 내가 어찌될 사람인지 생각도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약간 성공적이다. 확실히는 모른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예로 창세기 6장에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엄마의 귀신문화, 종교문화가 아이들을 계속 바꾸는 것이다. 대를 이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정에서 복음이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직 노아 가정 외에는 복음이 있는 가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홍수로 다 죽이고 노아가정만 살린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라는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들어가지만 하면 산다. 거기 들어간 짐승도 다 살았다. 내가 세상 전체를 살린다, 그것이 나와, 방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결혼을 반대한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섞인 모든 무리를 분리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아주 방해했다. 그런데 그가 4절에 제사장과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낸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은 원래 성전에 제물과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었다. 그런데 도비야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그 방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7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야 그 일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 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물품들을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는 것이다.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담당할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안 주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 밖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레위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래서 12절에 온유다가 십일조를 가져다가 공간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와 성전에 관한 것이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다. 본문 이후에 나온다. 당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안식일에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와서 각종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그 물건을 안식일에 사는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했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 조상이 포로가 되고 재앙이 임한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 시켜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러니 장사를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가서 말했다. 다음에 가서 또 이러면 감옥에 넣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그 사람이 겁이 나니 갔다. 모든 것위에 오직을 하는데 방해 되는 것을 다 제거한 것이다. 그냥 행정적인 조치,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오직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약속의 피, 그 희생제사에 오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완전 우상으로 가지는 않아도 양다리 걸친 인간들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것도 필요 없었다. 읽어 보면 유다사람들이 아스돗과 블레셋 지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이 블레셋 말을 하지만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말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유다말을 모르면 말씀을 못 읽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충 보면 심한 이야기이지만 확실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 제사장의 아들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사마리아를 통치할 권한을 받았다. 이방인의 족속이 권세가 있다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집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그를 불러서 가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영적 분위기를 바꾼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13장 전체의 줄거리이다.

왜 이런 것을 느헤미야에 마지막에 썼냐는 것이다. 오직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적, 행위적으로 고개 들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 틀렸다는 것 인정도 해야 한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야 하고 미국 남미 다민족 말하는 때이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방인과 결혼을 막았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까 설명한대로 오직을 해야 한다. 섞이면 안된다. 민족이 섞이고 피가 섞이면 언약이 섞이는 것이다. 그래서 다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다. 다른 종교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방인도 진짜 유대인이 되면 왜 미워하겠는가? 라합을 생각해보라.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지금 모압, 암몬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또 있는가? 없다. 없으면 내 마음에도 없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아주 클리어해야 한다. 그래야 언약을 잡는 것이다. 들을 때는 맞다고 하다가 나가면 섞여 버린다. 그래서 인생이 섞인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조를 안한다. 오히려 자기가 죽으시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다. 생각 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복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시대가 오면 달라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니 지금은 그 시간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표이다. 시간표도 아닌데 해봐야 안된다. 약속의 피는 근본 언약이다. 그러면 근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맘대로 할수 있는가?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한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 하나님이 완전 100이 되어야 한다. 이것 안되도록 사단이 자꾸 역사해서 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게 한다. 그것이 교만이다.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이다. 지가 일등을 하려고 한다. 내가 아무리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보고 믿는다고 한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이야기 하고 있다. 예전에 예수 믿으러 처음 갔을때에도 주일날 뉘 사먹으면 안된다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상당히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사먹는 자체로 안된다는 것이다.

집에서 먹는 것은 괜찮고 사먹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오늘도 귀인이라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롤을 깬다. 개인도 그렇지만 돈 있는 동네에서 먼저 깬다. 미국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 일을 깬다.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 쓰게 한다. 한국에도 오후예배같은 풍조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돈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돈 좀 써야지.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족이 왜 중요하나? 누구를 위해 중요하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흐지부지 되어서 되겠는가? 나머지 6일을 주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주일을 6일을 위해 산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 있어 이런 해석을 할수 있다. 그전에는 이런 단계에 못 올라간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생업에 걱정없이 예배에 전념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에게 경제를 주는 이유는 교회에서 레위인들이 예배에 전념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목표이다. 이것이 다른 지파들도 더 잘살게 되는 길이다. 아까워서 십일조를 안해서 예배가 없어지만 모두 다 죽어버리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우면 안된다. 큰 돈 못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뛰어 넘어야 한다. 나 혼자 십일조로 온 교회를 책임지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미국이고 남미고 필요한 모든 렘넌트 운동 내 혼자 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다운 기도인 것이다. 내돈내돈 하면 돈 썩는다. 부담은 갖지 말라. 집에가서 무릎꿇고 회개해보라. 십일조 한다고 죽지 않는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 나도 잘사는 길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헌금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와 전도 선교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때는 그래도 견딜지 모른다. 기본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이들 때에 가면 조금씩 변할 것이다. 3대째 가면 완전 광 될 것이다. 뻔한 일이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버렸다는 것이다. 결심해야 한다.

응답을 받는 길은 오직이다. 하나님은 섞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이 끝이 난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엄마말은 하고 유대말을 못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지속하게 되면 유다는 또 포로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민족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오직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다. 요엘서의 단어가 성취되었다고 행 2장에서 말한다. 맥추절은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오직이다. 하나님에게 오직이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오직이다. 이것이 답인 것이다. 그러면 진짜 정복하는 것이다. 된다. 오직은 진짜 답이 답되게 하는 길이다. 유일한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응답을 평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은 출발이고 끝이다.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설명한 여기에 오직을 하면 사람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다. 응답도 받고 인생도 회복되고 전도 선교도 정복하고, 재창조의 기적을 연속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한 언약이다. 다른 말로 작품이라고 설명할수 있다. 개인도 교회도 시대도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시대적인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이 설명한 언약은 원죄의 저주에서 해방이다. 이 한 개로 끝이다. 원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 이것이 약속의 피이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무슨 죄를 지어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는 법이 없다.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이 정상이다. 안 열리는 문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 필요 없는 문은 안 열리는 것이 맞다. 필요나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닫힌문도 열릴줄 믿는다. 우리는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라고, 거기에 오직하는 평생 되기 바란다.